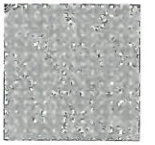


제2482호 2023년 12월 31일(나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성가즉 | 이남규 루카, 레드케임 기법, 115x114cm, 1987년, 서초동성당

입당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창세 15,1-6; 21,1-3>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콜로 3,12-21<또는 히브 11,8.11-12.17-19>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2,22-40<또는 2,22.39-40>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인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위의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처럼 늘 “감사하는 사람”(제2독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헤어질 때 건네는 인사말인 ‘굿바이’(Good-bye)의 본래 의미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God be with you)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에 처할 때라도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고 (루카 2,30) 고백할 수 있을만큼, 위로받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희망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가정 축일을 기념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일치와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일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특별함은 그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 사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사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양부이신 성 요셉은 가장으로서 보인 책임감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인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포용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튼

튼하고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아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을 마음속에 곰곰이 담아내며 삶의 고비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통해, 비록 그 여정의 마지막이 십자가상의 희생일지라도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당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이 자신에게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에 계속해서 응답하려는 것을 ‘의미에 대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때론 ‘거룩한 부르심’ 내지는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가정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적 사랑’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정도 ‘서로를 위해 강요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놓고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해를 시작합시다.

Good-bye 2023! God be with you 2024!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루카 2,32-33)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가족을 통해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란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중요한 근원이 되셨습니다. 신앙의 시작인 가족 안에서 기도를 통한 깊은 사랑의 연결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클라스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늘에 보화를 쌓은 사람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 | 예수회원, 꿈나무마을 공동체

아버지가 선종하시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부친 토마스 아퀴나스 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느님 나라를 사려했던 분이 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구교 집안도 아닌데 큰 아이는 수녀, 둘째 아이는 수사신부가 됐습니다. 막내는 약 10년을 사제 혹은 수도자 성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과는 달리 결혼 성소를 이뤄 예쁜 딸을 둘이나 키우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의 노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수도자가 된 것은 좀 맥락이 안 잡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건 조금도 없으니 아버지가 벌인 일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봅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던 저희 집이 팔리고 저희 가족은 동네의 이집 저집으로 이사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절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멈췄고, 그때 저희가 전세로 얻었던 집은 성당의 전 사목회장님 집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에 집을 얻고 그 집을 당시 사목회장이셨던 아버지께 전세로 내 주셨던 겁니다. 저희 가족은 잔디 깔린 마당이 있던 넓은 집에서 제가 병역을 마칠 때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성당은 신자들끼리 가진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내는 훈훈한 분위기가 살아있었고, 아버지도 주일학교 교장과 사목회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집이 팔렸던 사연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팔아 성당 신축 봉헌금으로 일부를 대셨던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벌일만한 일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사건을 우리 집에서는 그냥 넘어갔 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 있을 때 하느님

께 봉헌하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맞아요, 그래요.” 하고 어머니가 동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집 저집 전전해야 했던 아픔이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증을 잘못 섰기 때문 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반전이라니!

그런데 그런 사연은 모른 채 큰 아이는 알아서 수도원으로 떠났고, 둘째 아이도 그리했으며, 막내도 부모 곁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은 제 부모님이 쓴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를 도와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빚도 상속해 줄 재산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당신께서 바라시던 대로 임대주택을 정리하고 딸이 소속된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담한 양로원으로 떠나실 계획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보물이 묻힌 밭을 산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가족도 담보로 걸었던 모양입니다. 이 황당한 계획에 맞장구를 친 어머니, 이런 분들을 부모로 가진 아이들, 이들이 어울려 살았던 그 가정의 성가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무모한 투자는 분명 통한 듯합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대림 성탄'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독서'라 써줘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성기정 축일 강론에서, 가족들이 서로 비난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자기관 울다고 우기다가 결국 차가운 침묵에 빠져들 때 가정은 위험에 빠진다고 강조하시며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신앙 감각의 성장,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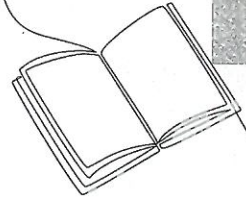
신앙 감각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 본성(connaturalis)’이라는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 감각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단어를,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닮은 것을 알아본다.’일 것 같습니다.

공동 본성에 대하여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본성은, ‘가’라는 개체가 ‘나’라는 개체와 매우 깊은 신뢰 관계를 이루어 ‘가’가 ‘나’의 본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친구 관계에서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와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가진 성향을 함께 지녀서 다른 친구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 감각에 적용해 보지요. 신앙은 대신덕,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을 때, 그는 올바른 신앙에 적합한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 행동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상태는, 바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갖추시게 되는 것이지요. (갈라 4.19 참조)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그분께, 그리고 신앙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더 잘 알아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사에 참여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신앙 감각을 성장시키는 성령께 협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 감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 감각인지 식별해야 하는데, 그 최종적인 권한은 교도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도로부터 전해 받은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현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다.”(교회현장 12항)

우리가 살펴본 보편 사제직과 신앙 감각 개념은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핵심입니다. 시노달리타스란 교회의 삶의 방식, 활동 방식을 가리키는데, 사목자, 혹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수행에 각 사람이 제 몫을 하면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상호 존중과 경청인데, 그 근거가 바로 보편 사제직과 신앙 감각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저마다 고유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로 인해 신앙 감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성령의 소리를 혼자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 요청하시는 것을 함께 식별해야 합니다. 보편 사제직의 충만한 수행과 신앙 감각의 성장은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명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수차례 읽어봐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식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셔서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는 말과 더불어 말이지요. 모두 불안과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느끼게 하는 선언입니다.

사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는 자신을 향해 죽음의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7,60)라며 용서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여러 우상과 신상들을 세워 놓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대단한 종교심을 가졌다고 칭찬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선포는 열정적이며 친절했고, 공포가 아닌 감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섬김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10-11)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하는 복음은 심판과 단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빠진 세상은 욕망과 탐욕 속에서 빛과 사랑, 진리 등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빛이며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우리는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혐오와 폭력,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들 앞에서 사랑과 섬김, 용기와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사랑과 희망,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거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흐(J.S.Bach) 성탄 오라토리오(Weihnachtsoratorium)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성 필립보 네리(Filippo Neri, 1515-1595)는 로마에서 ‘오라토리오 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데 강론뿐 아니라 직접 작곡한 음악도 기도 모임에 활용하였습니다. 이 음악에 사용된 언어는 이탈리아어였고, 하나의 성부 즉 단선율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모임의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orare) 곳’을 의미하는 ‘오라토리오’(Oratorio)였습니다.

이러한 기도 모임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은 무대 장치도 없고, 등장인물도 없으며, 낭송과 아리아(독창) 그리고 합창, 때로는 기악 반주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고요하고 단순하게 묵상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라토리오’라는 장소에서 연주되던 음악이 점차로 강론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연주되는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오라토리오’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음악 형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600년 로마에서 연주되었던 에밀리오 카발리에리(Emilio de Cavalieri, 1550-1602)의 작품 ‘영혼과 육체의 묘사’(La rappresentazione di anima e di corpo)를 최초의 오라토리오

로 간주합니다.

성 필립보 네리가 작곡했던 오라토리오가 점차로 귀족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탈리아어 가사의 단선율보다는 라틴어로 된 다성음악의 모테트 형식이 선호되면서, 17세기 전반에 오라토리오는 ‘오라토리오 볼가레’(Oratorio volgare)와 ‘오라토리오 라티노’(Oratorio latino)로 구별되어 발전해 나갑니다.

결국 ‘오라토리오’는 낭송, 독창,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작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을 주제로 연주하는 음악 형식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음악이 발전하면서 오페라, 칸타타와 함께 등장한 오라토리오, 무대가 없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구별되고, 해설자(Historicus)가 있다는 점에서 칸타타와 다릅니다.

바흐(J.S.Bach, 1685-1750)가 작곡한 ‘성탄 오라토리오’(BWV248)는 1734-35년 성탄 첫째 날(12월 25일)부터 예수 공현 대축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의 토마스 교회와 니콜라이 교회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레치타티브(낭송), 그사이에 배치된 코랄, 아리아 그리고 시작과 마침 합창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이 작품은 6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성탄 시기에 6일 동안 연주됩니다.

- 첫째 부분: “기뻐하고 용약하라”

성탄 첫째 날(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

- 둘째 부분: “그리고 그 지방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성탄 둘째 날(12월 26일),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짐

- 셋째 부분: “하늘의 주권자여”

성탄 셋째 날(12월 27일), 마구간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

- 넷째 부분: “감사와 찬미로”

예수 봉헌(할례) 축일,

- 다섯째 부분: “하느님, 당신께 영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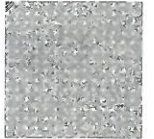
새해의 첫 번째 주일, 동방 박사의 경배

- 여섯째 부분: “주님, 거만스런 적들이”

주님 공현 대축일, 동방 박사의 경배



바흐(J.S.Bach), 성탄 오라토리오 중 에서, 기뻐하고 용약하라(Jauchzet frohlocket)



선교 안에서 시노드 교회

(A Synodal Church in Mission)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시노드) 정기총회 본회의(1회기)가 지난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로마 교황청의 바오로 6세 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대의원 주교들과 함께 평신도, 수도자를 포함하여 365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에는 54명의 여성들도 대의원 주교와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절차는 2019년에 발표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각 교구별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한 후, 대륙별 식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종합하고 의안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안집의 내용에 따라 그룹별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회의 단계 제1회기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선교 안에서 시노드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종합보고서는 본회의 제1회기 과정을, 세례를 통해 드러난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소개하며, 경청과 침묵, 나눔과 기도의 풍부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제1부 ‘시노드 교회의 얼굴’에서는 시노달리타스와 그 신학적 토대를 설명하면서, 시노달리타스의 경험과 이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느님 백성은 세례를 통해 시노드 교회로 들어가며, 시노드 교회 여정의 주역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여정이 시노달리타스라고 소개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노드 교회 안에 현존하는 동방교회와 라틴교회 전통의 가치를 향한 여정,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향한 여정 또한 시노달리타스라고 제시됩니다.

제2부 ‘제자들, 선교사들’에서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삶과 선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 관계로 다루면서, 선교가 곧 시노드 교회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선교사인 하느님 백성 중에서도 여성, 축성생활과 평신도 단체, 사도직 운동이 지니는 은사적 표지, 시노드 교회 안에서 부제와 사제, 시노드 교회 안에서 주교 그리고 주교단과 로마의 주교인 교황의 상호 관계로 시노달리타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부 ‘유대감 형성, 커뮤니티 구축’에서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와 세상 안에서 교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며 조직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로 다룹니다. 시노드적인 양성, 교회를 향한 질문과 교회 식별의 태도, 경청하고 동반하는 교회,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교, 참여를 위한 시노드 교회의 의사 결정과 구조, 전체 교회 안에서 교회들의 그룹화 작업, 그리고 주교시노드와 교회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 중에서 미래를 품은 씨앗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숙고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본회의 제2회기까지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노드 여정을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려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있음이 보고서 안에 드러납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시노드를 통해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가?

12월 18일 자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이 화제입니다. 지면도 제한된 짧은 기사의 제목만 보고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인가?’ 하는 오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에서 작성한 설명글을 바탕으로 이번 선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선언은 성과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톨릭 전례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해 온 ‘축복’ 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하는 선언입니다. 확장된 ‘축복’의 대상에 동성 커플이나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이 포함되지만, 이 축복이 동성 결합 자체에 대한 교회의 승인 또는 ‘역사적인 전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 어떠한 혼인의 상태(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혼인 상태나 동성 결합의 상태 등)에 있더라도, 그들이 청하는 ‘사목적’ 축복을 허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본 선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동성 커플이 원할 경우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집전’은 전례 의식의 거행을 의미하기에, 이들에게 전례서와 전례 의식에 따른 축복을 집전하는 것은 문헌이 발표된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언문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전례 행위로 인정되거나, 더 나아가 교회가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의식이나 복장, 몸짓, 문장 등이 사용되는 축복을 해서는 안 되며, 가톨릭교회의 전례인 미사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결혼식 형태를 띠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로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이며,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사목 현장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톨릭교회 내에서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합을 교리상 ‘죄’로 인식하는 만큼,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과 동성 커플에 대한 인식도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선언은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동성 결합의 형태를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교회 내의 시각 변화에 큰 의미를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성 결합의 형태를 살고 있는 이들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들의 바람과 그들 개개인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 구성원이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이 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의 공적 권위로 행하는 전례 행위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커플들 개개인에게 사목적 배려로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2월 31일(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31일~2023년 1월 6일)'이 시작됩니다

제23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월)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2024년 '서울주보' 필진 안내

표지 사진(성화)	설명: 신지철 신부(교구 성미술 담당)
생명의 말씀(첫째주)	정순택 대주교 · 손희송 주교 · 구요비 주교(주교단) 신희준 · 양해룡 · 윤정환 · 박규흠 신부(지구장 신부)
생명의 말씀(둘째주)	박경근 · 이계철 · 문종원 신부(주교좌 기도 사제)
생명의 말씀(셋째주)	이한석 · 허규 · 최승정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넷째주)	유지인 · 이근상 · 황인수 · 김찬선 신부(수도회)
생명의 말씀(다섯째주)	윤용렬 신부(등촌1동성당 부주임)
사랑의 손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학	조한규 · 방중우 · 전인걸 ·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성경	이영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청소년면	청소년국 청년주보팀, 청소년국 중고등부, 은성제 신부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T)], 정지원 신부(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공동체)), 임여주(부산대학교 교수)
칼럼 인간학	신승환 교수(가톨릭대학교 교수)
칼럼 도서	김우선 신부(서강대학교 교수)
칼럼 영화	구본석 신부(행당동성당 부주임)
칼럼 심리	민범식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장)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주보'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는 [홈페이지 cc.catholic.or.kr]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 봉헌 요청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이스라엘 주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구의 모든 본당은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까지 미사 전이나 후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12월 31일 송년 미사 전 평화를 위한 성체조배 혹은 묵주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구청 알림

근사량 봉사회 봉사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31회)

때: 매월 첫째주(화) 2024년 1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녘 본당’ 미사)

때, 곳: 1399차 미사 2024년 1월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비현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3~2024 청소년 성소개발과

최양업 신부님 사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 및 일반인자 / 분량: A4 2장 이상
마감: 2024년 3월17일(일)까지 / 시상: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2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www.clak.or.kr) 참조
문의: 02)777-2013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024년 1월4일(목) 오후 2시~3시
곳: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2024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2일(금) 오후 2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천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천 일정은 교구 및 본당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12월23일(토)~2024년 1월4일(목)

성소후원회 신년미사

때, 곳: 2024년 1월6일(토) 오후 2시, 명동대성당
주례: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123

성경통독 일일 피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문의: 010-8889-5425(문자)
내용: 신명기 역사서 본문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4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신인사목위원회교육(온라인)

대상: 본당 신인사목위원
때: 2024년 1월24일(수)~2월29일(목)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회비: 1만원(2024년 1월17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준단체 알림

모임

노들담 수녀회 성소 피정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선착순 7명
 때: 2024년 1월26일(금) 20시~28일(일) 15시
 곳: 노들담 수녀원(인천) / 문의: 010-3930-6730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관독: 2024년 1월5일(금)~13일(토)·2월16일(금)~24일(토)·3월16일(토)~24일(일),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형성) / 문의: 010-3340-0201

순교 영성 피정

강사: 김경희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인원: 60명
 때, 곳: 2024년 1월20일(토)~21일(일) 1박2일·3월22일(금)~24일(일) 2박3일,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주최: 부산 먼형강학회 / 문의: 010-2670-233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부산 분원

2024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대상: 가톨릭 청년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때, 곳: 2024년 1월6일(토) 15시~18시, 가톨릭 의과대학 의과대학원 2층 대강당(서울성모병원)
 회비: 1만원 / 예약 계좌: 국민 794001-04-122952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주일은 거룩한 날, 귀한 날, 영적인 날이 니, 거룩히 지낼지라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매월 둘째주(토) 2024년 1월13일 14시~18시
 곳: 구산성지 / 2월은 방학입니다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2024년)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월2일	김현우 신부	1월9일	이창진 신부
------	--------	------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문의: 061)373-3001,
제124차	2월9일(금)~17일(토)	010-3540-9001

하부내포성지 도보순례 / 문의: 010-3807-1784

출발: 7시40분, 서울 명동(대행버스) / 회비: 1일 6만원

2024년 3월23일(토)	오성바위터-완장포구-서짓골-삼티(도보 구간) 도양골
2024년 4월27일(토)	신시도-산막골(도보 구간) 작은계, 득피공소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신년 피정	1월15일(월) 10시~17시30분 1강 한성호 신부, 2강 한영임 회장 미사(강의·안수): 최황진 신부
2024년 내적치유 피정	1월31일(수) 10시~17시30분 1강 표중관 신부, 2강 한영임 회장 미사(강의·안수): 이창진 신부

성바로말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대상: 33세 이하 미혼 여성
 때: 2024년 1월12일(금)~14일(일) / 회비: 3만원
 문의: 010-3201-5954 효주아네스 수녀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 / 중식 무료
 때, 곳: 1월8일(월) 10시~16시(1월1일(월) 송구영신 피정으로 8일로 이동합니다),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4년 1월8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쿠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2024년 1월17일~3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적역)
 회비: 15만원 /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개강(150기)

때: 2024년 2월21일(수) 14시·3월7일(목) 10시
 곳: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4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

접수기간: 2024년 1월3일(수)~6일(토) / 모집: 조형예 술대학, 간호대학 / 전형방법: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입학문의: 032)830-7022, 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온라인 '성가정생활캠프' 가족 신청

우리는 소년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부모일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수 있습니다 성가정생활캠프에 접속하시고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되찾아 신앙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 안충석 신부
 함께하는 아: 임병현 신부, 최대환 신부, 성염 교수
 홈페이지: www.holyfamilycamp.com / 구글, 네이버에서 '성가정생활캠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 010-8760-2899 안충석 신부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2024년)

곳: 프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부설(주최) / 010-4694-1880(learning4@daum.net)

오전반	1월10일(수) 11시	저녁반	1월9일(화) 19시30분
-----	--------------	-----	----------------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1월 개강, 각6주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	소진형 박사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귀환시대	주원준 박사
수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
목	수도사들의 화가 수르바란의 미술로 살펴보는 가톨릭 영성과 신심	김현직 신부
금	요한 신부와 함께 읽는 요한복음	김민 신부
금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째 길	최지원 수녀

이론강습-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

곳: 튕뚱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주최, 돈암동)
 문의: 010-6746-1997 (문자)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2024년 1월5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지도: 양창우 신부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2024년 1월6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끈뽀우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2024년 1월6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2024년 1월5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안내

제주도 관광

제주온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roller바의수녀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 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에 의한 갈등, 스트레스 직장내 어려움·대인관계, 종합심리검사 진행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직원모집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활동운영팀 /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2024년 1월12일(금)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영업, 물류,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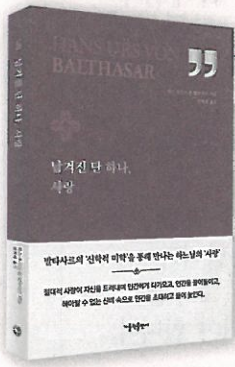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12월31일(일) 16시	수녀원(산내동성당)	010-8446-321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추천 도서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유딧 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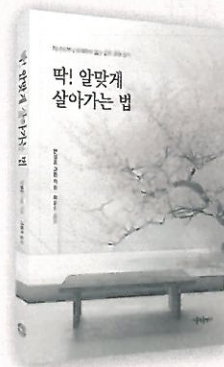
신간

남겨진 단 하나, 사랑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2만원

발타사르의 ‘신학적 미학’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절대적 사랑



안셀름 그린 베스트셀러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안셀름 그린 지음 | 1만7천원 **개정**

삶의 품격을 높이는
‘분별력’의 가치

가톨릭 대표 영성가가 말하는
‘삶의 균형을 잡는 법’



새해 추천 도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지음 | 2만원

2021~2023년
가톨릭 분야 베스트셀러

인생의 지혜가 담긴 코헬렛서를 통해
전하는 영적 메시지



새해 추천 도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박승찬 지음 | 2만2천원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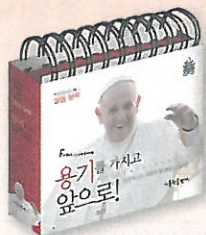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에서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다

2024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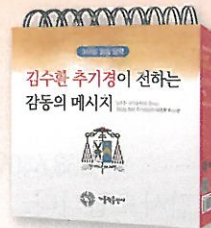
YOUCAT 달력

YOUCAT 재단 지음 | 1만6천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1만3천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김수환 지음 | 1만3천원



모든 순간이 다
꽃으로 필 거예요

이해인 지음 | 1만2천원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일시	미사 시간
	1/1(월)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6시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30일(토) 오후 3시 ~ 31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5,000원

◎ 연령회 미사

일시 : 1월 2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신심미사 : 1월 6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금)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9,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8일(주일)

◎ 성탄맞이 케이크 판매 수익금1,638,640원

※ 도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8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세대구성원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무금 책정자 변경을 12월 31일 오늘까지 하셔야 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2. 2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23	870 (43%)	842 (41.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2월 18일~24일)

익명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익명	일십만원	권수희	오만원
이옥진	일십만원	정수영	삼만원
은희봉	오만원	익명	오만원
장철호	일십만원	김은희	삼십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이지만	일십만원
양경남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4주일)

교무금	10,569,000원
주일헌금	6,212,100원
성탄성야	2,759,000원
주님성탄대축일	4,746,000원
성탄구유예물	3,541,000원

입당	113	봉헌	102,220,512	성체	98,169,152	파견	114
----	-----	----	-------------	----	------------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